

길 잃은 부동산 정책...당내 갈등 조짐

민주 지도부 너무 신중해 혼선 가능 공감대 형성 재산세부터 발표했어야 野 중부세 정책 선수에 부담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뾰족한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내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미적거리는 사이 당내 노선 갈등 조짐까지 일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체적 공감대가 형성된 재산세 감면안을 비롯해 당정 협의가 가능한 정책부터 확정·발표했어야 한다는 실기론도 제기된다.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는 만큼 정책 사안별로 속도감 있게 대응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25일 "부동산특위와 지도부가 너무 신중해 혼선만 일고 있다"며 "어차피 중부세는 당장

결론 안 날 텐데 그렇다면 재산세 감면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 세제나 공급을 두고 막판 종합적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별 대책 발표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위원총회에서 중론을 모은 뒤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5월 말~6월 초 정책을 공개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인사말에서 "우리는 집권여당이다.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아니다"라며 "뭘 비판하고 지적할 순 있지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당당한 주인"이라고 강조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당 대표나 지도부가 짝어 누른다고 중요한 정책이 빨리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송 대표가 민주당 의사결정 구조를 강조하다 보니 혼란으로 비쳐 우려스럽지만 금세 견힐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특위가 중부세 완화 문제를 좀처럼 매듭

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중부세 정책의 선수를 치고 나온 것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국민의힘은 중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어떤 중부세 완화를 내놓더라도 야당의 뒤를 따르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서울의 한 재산 의원은 "내년에 치러질 대선에 지방선거까지 고려하면 집값이 급등한 서울의 부동산 민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중부세가 부자 감세라는 접근은 구태의연한 사고"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민심을 거꾸로 읽고 표 계산기를 두드리며 우왕좌왕하다 결국 국민의힘에 뜻지리만 깔아준 형국"이라며 "이제 부자 감세해봤자 국민의힘만 박수를 받게 됐다. 민주당 처지가 참 막하다"고 비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돌풍' ...야권 대권구도 흔들나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25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1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안철수 등 셈법 복잡

국민의힘 당권레이스 초반, 세대 대결 구도가 뚜렷한 가운데 신에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거세다. 당장 야권 대권주자들의 행보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당밖 주자들의 셈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당 밖의 유력 주자들에게 의해 당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앞세운다. 누구에게도 '특별 대우'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25일 통화에서 윤 전 총장 영입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 주되 특정 주자를 위해 기다려줄 수는 없다"며 "당이 중심을 못 잡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에 대해서는 더 가혹하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 대표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던 이 후보는 최근 "소값은 후하게 쳐 드리겠다"는 말로 국민의당과의 당 대당 통합에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의 대선 출마를 지원하기 위

해 윤 전 총장과 안 대표를 노골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복당을 노리는 홍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 후보의 돌풍에 대해 "한 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며 "또다시 실험 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우려를 던지기도 했다.

반면, 주호영 나경원 후보 등 야권 대통합을 강조해온 중진이 당권을 잡을 경우 윤 전 총장이나 안 대표의 국민의힘 합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호영 나경원 후보는 출마 선언부터 통합을 강조했다"며 "당 밖 주자들의 개인적인 진보도 상대적으로 더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주 후보는 윤 전 총장이 2014년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을 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와는 지난달까지 직접 통합 논의를 진행해왔다.

나 후보 역시 윤 전 총장과 서울대 법대 선배 사이로 얽혀 있다. 최근 안 대표와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후보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도 비교적 적극적인 편이다. 윤 전 총장, 안 대표를 끌어들이려면 홍 의원이 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정당 가입 연령 16세로 하향 추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관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당가입 연령을 16세로 하향하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투·개표 참관 허용, 청소년 모의투표 허용 등을 통해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의견을 냈다.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교일 학교에서의 투표참여 권유나 공개 연설, 선거 홍보물 배부 등은 금지하도록 했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확대와 선거운동 제한 규정 완화도 추진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40일전에서 1년전으로,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는 120일전에서 240일 전

으로 각각 늘린다.

신문·방송광고와 방송연설 횟수 제한을 없애고, 종합편성채널에서도 방송광고와 연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공개 연설시 확실성치의 출력 규모와 사용 시간은 규제한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시청자 후원 서비스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내경선 및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배분방식도 개선, 우선적으로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보조금 절반을 균등히 배분하는 대신,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운동, 정당 활동의 자유, 참정권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심도있는 검토 후 개정의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희재, '국회의원 체포·구금 국회 동의 구분 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희재(여수) 국회의원은 25일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 체포와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의 대상을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현행 국회법 역시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으로 규정하는 등 체포와 구금의 개념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

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구금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체포와 구금 동의를 명확히 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에 불리한 대법원 예규가 헌법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인신에 관한 사항을 헌법 취지에 맞게 보다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입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끈대진보' 프레임 간헐라...민주, 이준석 돌풍에 초조·긴장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2030'으로 부터 외면받은 민주당으로서는 '젊은 피' 이 전 최고위원의 행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지도부 교체기를 맞은 보수 야당이 연이은 개혁적 행보로 여론의 전통적인 텃밭인 호남 지지율마저 잠식하는 현상이 맞물리면서, 세신 기지를 내건 송영길호(號) 민주당이 내심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이준석이 뜨는 현상에 어떻게 대응할지 머리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준석은 기존 정치인과 다른 문법을 구사하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된다면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며 "태극기 부대의 이미지를 벗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만 39세인 김남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정치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다"며 "청년정책 부재에 대한 민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으로써 이 전 최고가 높은 지지를 받는 것 같다. 우리 당도 굉장

히 긴장하며 지켜보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도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20·30대 그룹을 비롯한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며 기존 문재인 정부 기조와 차별하고자 하는 기류가 감지됐지만, 친문 강경파의 비난에 부딪힌 뒤 소강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의 돌풍으로 역동성이 더해지며 젊은 유권자들의 이목을 끄는 게 사실이다. 전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 한 참석자는 자당 20대 지지율이 추락한 사실을 거론, "이러다가 우리가 보수당이 되겠다"는 푸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h2>상가매매 (상무지구)</h2> <p>감정가(시세) 9억원 →매매가 5억3천만원 →보증금 3천만원, 월 250만원 (용 3억6천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상업지구 메가박스 영화관 앞 ☑ 사무실, 바, 유흥룸, 모든 업종 가능 ☑ 즉시 업무 가능, 시비 없음 <p>010-6670-9800</p>	<h2>신축원룸(매매)</h2> <p>월 수익 750만원 연 수익 9천만원 →매매가 13억원 (용 6억5천만원)</p> <p>★ 4개동(월수익 3천)년 4억 / 매가 52 (용 25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실 없음, 임차인 항시 대기 (관리 회사에서 해드림) ☑ 당진시 석문산업단지, 화력발전소 부근 대산항 10분 소요 <p>010-4667-9820</p>	<h1>꼭! 받아야 할 돈 회수</h1> <p>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p> <h2>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h2> <p>(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p>전문추심인 직접관리</p> <p>24시간 상담가능</p> <p>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p> <p>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p>
--	--	---